스위스 윈터 스토리.

지역명사를 활용한 관광지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있는 지역명사가 소개하는 겨울 관광지
관광스토리텔링, 스위스에서도 감성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관광 마케팅 기법
특별한 인물이 가진 스토리를 통해 겨울 관광을 소개하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즐기는 스키 투어링
목수 부자가 공들여 만드는 수공 썰매
완벽한 스키 슬로프를 위해 매일 밤 벌어지는 설상차 행렬
종이와 눈밭에 그림을 그리는 프리라이더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8 년, '다시, 자연의 품으로(Back to Nature)'라는 테마에 맞게 스위스 자연의 품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며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체험거리 700 가지 이상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모든 체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지역 토박이들의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나라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지나 특산품, 향토 음식을 소개하는 데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관광 상품의 차별화 및 가치 발견을 위해 스토리를 가미함으로써 상품 자체 보다도, 감동이 있는 개인적인 연관성을 부여함으로써 더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스토리텔링은 관광지의 자원, 지역주민, 관광객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가치체험으로 생태관광이나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도 감성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관광 마케팅 기법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인적 자원(휴먼웨어)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고자 하는 노력이 특히 돋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의 역사와 삶을 함께한 명사를 고품격 이야기꾼으로 발굴 및 육성해 명사의 생생한 '인상담'과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지역의 여행상품을 고급화 하기 위한 '지역명사 문화여행 프로그램'을 곳곳에서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스위스에서는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맞아, 스위스 각지의 명사를 주인공으로 한 윈터 스토리를 개발하고, 이들이 소개하는 체험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스위스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 스노우 스포츠를 다채로운 방법으로 만나볼 수 있다.

1. 뢰슈티(Rösti), 캐비어, 파우더 스노우 I 크랑 몬타나(Crans-Montana)

스위스의 미슐랭 점수격인 고미요(GaultMillau) 18 점을 획득한 미슐랭 스타, 올해 가장 주목받는 셰프로 선정된 프랑크 레이노(Franck Reynaud)는 스타 반열에 올랐다. 그의 전 세계 내노라하는 미식 전문가들을 스위스의 작은 산골 마을, 크랑 몬타나로 끌어 모으고 있는 장본인이다. 이 프랑스 셰프는 끊이 없이 새로운 도전을 찾는다. 주방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프랑크는 안목있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리를 할 줄 안다. 프랑크 레이노는 채 30 살이 되기도 전에 첫 미슐랭 스타를 획득했다. 실력을 갈고 닦아 20 점 만점의 고미요 점수에서 18 점까지 받아낸 그는 스위스 불어권에서 올 해 가장 주목 받는 셰프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그의 수상 경력에 일부에 불과하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이 곳에는 품질이 우수한 로컬 식재료가 풍성하죠. 셰프의 천국인 셈이에요. 겨울에는 시즈널 디쉬를 요리하기가 더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전 이 도전을 즐깁니다.”

한 접시의 요리가 한 점의 예술이고, 색채와 아로마의 폭발이다.

골든 브라운으로 로스트된 필레 주변으로 소스를 살살 뿌려 낸다. 두 장의 종잇장처럼 얇은 비트루트 크래커를 가니쉬로 올린다. 족집게를 이용해 직접 기른 허브 줄기를 밀리미터 단위의 신중함을 기울여 사뿐히 올려 놓는다. 프랑크는 아로마와 곡예를 벌이고, 색채로 마법을 부려 그가 이끌어낸 맛에 고객들이 절로 감탄하게 만든다. 한 접시의 요리가 한 점의 예술이라는 평에 그는 “그저 열정으로 요리하는 것 뿐이죠.”라고 답한다. “제 고객들의 감정들을 일깨우고 싶거든요.”

프랑크는 그의 직업이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를 이 곳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해소한다.

프랑크가 투어링 스키를 신는 이른 아침, 밖에는 아직도 칠흑같은 어둠이 내려 있다. 그의 오랜 친구와 로컬 산악 가이드 피에르 올리비에 반뉴(Pierre-Olivier Bagnoud)와 함께 산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다.

“전 스키 투어링을 할 때 긴장이 풀려요. 저에게는 마치 업무 후에 조깅을 하는 것과 같죠.”

프랑크가 스키 투어링을 할 때 체험하는 행복하다는 느낌과 만족감이 바로, 그가 그의 고객들에게 선사하고 싶은 것이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늘과 산 봉우리들을 수 천가지 빛깔의 빨강으로 밝힌다. 따스한 아침 빛에 계곡이 몸을 담근다. “이런 순간들은 돈 주고 살 수 없죠.” 라고 프랑크가 열변을 토한다.

“이 곳 크랑 몬타나의 산 세계는 참 독특한 놀이터같아요.”

액션과 아드레날린: 프랑크는 그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랑해 마지 않는다. 이 미슐랭 스타 셰프에게 주방에서 벗어날 시간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있을 때마다 산을 찾는다. 겨울이면 투어링 스키로, 여름이면 산악 자전거로 말이다. “평온함과 자연, 그리고 친구와 함께 어디론가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제게 중요한 것이죠.”

“산장 식당에는 미식 메뉴는 없어요. 그건 마치, 바닷가에서 퐁뒤를 주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미슐랭 스타 셰프가 추천하는 메뉴는 바로, 뢰슈티(Röst: 스위스식 감자전), 치즈를 올린 토스트, 혹은 파스타다. 캬반 데 비올레뜨(Cabane des Violettes)에서 산장 관리인인 피에르 올리비에와 프랑크는 완벽한 산장에서 일하는 꿈을 실현한다. 소박한 산장 음식이 메뉴에 보인다. 프랑크의 미식 키친에서 일하던 그 누군가 마주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는 이 순간을 즐긴다. 물론, 훌륭한 발레산 와인 한 잔이 빼질 수 없다.

프랑크 레이노의 인사이더 팁:
* 란도 파크(Rando Park)가 운영하는 15 개의 스키 투어 루트 중 하나 도전해 보기. 저녁 프로그램 포함.
* 산장 식당, 캬반 데 비올레뜨의 테라스 석에서 발레산 와인을 곁들여 “펜네 쿨루아 마리넬리(Penne couloir Marinelli)” 파스타 맛 보기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 구르메 스키 사파리(Gourmet Ski Safari): 빠른 하강, 특별한 요리와 우수한 와인
* 산악 가이드 피에르-올리비에 반뉴와 함께 스키 투어 떠나기

2. 목공의 신비 I 레 디아블러레(Les Diablerets)
모레로(Morerod) 가족은 아름다운 수공 썰매를 만들고 있다.

꼴 드 라 크루아(Col de la Croix)는 레 디아블러레와 빌라르(Villars) 마을을 연결하는 고갯길이다. 11 월이면 이 길을 즐겨 찾는 자전거족들과 모터바이크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시기다. 이 때 썰매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 아이들은 썰매 계의 롤스 로이스라 할만 하죠.”
자부심에 가득 찬 미소를 지은채 모레로 브랜드의 장인정신을 담은 서양물푸레나무를 칭하는 ‘애쉬’로 만든 가장 최근 작업에 부드럽게 페인트칠을 하며 브루노 모레로(Bruno Morerod)가 그의 젊은 아들, 조엘(Joël)을 칭찬한다.

손으로 공들여 제작한 이 로켓을 타면 레이싱 카를 탄 듯한 기분이 들거에요. 이들 부자는 전통적인 다보스 썰매를 언급하자 지루한 미소를 짓는 외에 더 이상 말이 없다. 이들의 썰매는 무게 중심이 더 낮게 설계 되어 있고, 활주부가 유연하게 제작되어 있어 전통 썰매보다 훨씬 좁게 회전할 수 있어 썰매를 탈 때 완전하 다른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활주부가 특별한 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어 초고속 썰매 체험을 할 수 있다.

풀질하고, 톱질하고, 갈아내고, 사포질을 하느라 부자는 여념이 없다.

60 개 이상의 부품과 일곱 시간의 노고 끝에 성공작이 탄생한다. 브루노와 그의 아들은 12 개의 나무판을 샌드위치처럼 붙여 활주부 몰드 위에 잡아 당겨 작업한다. 풀에 젖은 나무는 곡선으로 굽은 형태대로 굳어 지고, 단단해진 활주부는 다음 날 두 개로 톱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왼쪽과 오른쪽의 활주부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을 하게 되고, 방향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애쉬가 기본이죠.”
이들의 썰매는 활주부부터 버팀목, 좌석까지 모두 스위스 애쉬를 사용해 만든다. “거의 백년이나 된 재료죠. 작업하기 쉽고 내구성이 좋거든요.” 조엘이 설명한다.

썰매에 대한 이들의 열정도 대단하다.
브루노가 60 년대를 회상하자 그의 눈이 반짝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었던 봅슬레이같은 썰매를 친구들과 같이 타고 고갯길을 내리 달리던 때를 회상한다. 이 초고속 썰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세히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썰매에 대한 그의 열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렬하다.

선물같은 썰매를 만들고 싶죠.

모레로는 이런 특별한 로켓 썰매를 일 년에 열 개에서 열 다섯 개만 제작한다. 생계는 목수일과 창호일로 유지한다. 하지만 썰매를 만드는 것은 이들의 모든 종업원들에게 하이라이트와 같은 일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물건을 만들죠.” 조엘이 말한다.

이 부자는 팀을 이뤄 어둠을 가르며 썰매를 탄다. 모레로 가족의 종업원들은 정말 신이 나 있다. 야간 썰매 세션이 돌아오면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인다. 물론 각자만의 썰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숍에서 수공 로켓 썰매를 사자면 CHF 600 이나 하는 것들이다.

약간의 테크닉이 유용하다. 날이 밝을 때 썰매 코스가 어떻게 구불거리게 형성되어 있는지 봐 두는 것이 좋다. 물론 모레로드 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7km 의 썰매 코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손바닥 보듯 훤한 그들이다.

이들이 만든 썰매를 한 번이라도 타 본 사람이라면 “한 번 더!”라고 외치며 번개같은 속도로 계속하여 달리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믿을 수 없으리만큼 신나는 체험이기 때문이다.

레 디아블러레의 썰매 코스:
* 코스 길이 7.2km
* 552m 의 고도차
* 4 개의 회전 코스
* 평균 경사도 7.67%
* 즐거움 보장 100%

3. 나드야(Nadja)와 함께 밤 속으로 I 렌처하이데(Lenzerheide)
산에서 여성의 파워를 찾아볼 수 있다.
강력한 설상차는 슈태처호른(Stätzerhorn) 아래 새하얀 눈 밭을 서서히 가로지른다. 체구가 작고 젊은 여인, 나드야 구트(Nadja Gut)가 그 운전대를 잡고 있다. 그녀는 보름달 빛 아래 온 산을 혼자 독차지한 듯한 기분을 즐기며 14 톤에 달하는 거대한 차량을 손쉽게 다룬다.

별로 힘들이지 않는데도, 이 무거운 차량은 가파른 슬로프를 잘도 오른다. 약간씩 흔들리며 단조롭게 웅웅대는 엔진은 마음을 달래 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멀티태스킹’이란 말이 모든 것을 함축한다. 온전히 집중하여 나드야는 차분하게 설상차를 평행으로 맞추는 모든 조작에 심혈을 기울인다. 첫 눈에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다. 윈치, 전방 갈퀴, 후방 갈퀴 외에도 수 많은 조작이 필요한 기술이다.

“설상차 운전에 재미를 들이면, 아무리 해도 모자라죠.” 여름이면 그녀는 알프스에서 치즈를 만들고, 겨울이면 렌처하이데의 스키 슬로프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을 한다. 나드야는 자연을 사랑하고 이보다 더 나은 직업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녀의 동료들도 같은 의견이다. 그래서 그녀에게 퍽이나 잘 어울리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바로, “슈태처 공주님”이다.

밤의 여행 동반자. 외로운 늑대?
모든 운전자와 그들의 설상차는 배정된 피스트를 책임진다. 나드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녀가 외롭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거리가 먼 얘기다. 그녀의 동료 중 그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면

워키토키를 이용해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 하에 잘 처리가 되니 말이다.

밤의 의례.
매일 밤 마법이 벌어질 법한 시간이면 끈끈한 커뮤니티의 정이 만연하다. 밤 12 시 정각이 되면 나드야는 그녀의 제설차를 중립으로 놓고, 회전 조명과 라디오를 켜고 경건한 마음으로 스위스 국가를 듣는다. 다른 운전자들도 마찬가지다. 매일 밤 그들이 치르는 특별한 의례인 셈이다.

다음 날 아침,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여 든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두 시간 깜빡 눈을 붙인 나드야는 아침 일찍 다시 산을 오른다. 전 날 밤 그녀의 작업을 비판적으로 조사해 보려는 고집 때문이다.

간밤의 작업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 만약 슬로프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짓고, 눈 위로 단호한 카빙 턴을 만든다. 그리고 저녁이면 그녀는 다시 산에 오른다. 이번에는 그녀가 애정하는 설상차의 운전대를 잡고 말이다.

아로자(Arosa) 렌처하이데의 노고 어린 설상차 작업에는 39 명의 운전자와 29 대의 설상차가 투입된다. 매일 밤 225km 의 슬로프를 정성껏 가꾸고 있다.

4. 삶을 위한 선의 자취들 I 몰레종(Moléson)
펜과 스키가 그의 도구이고, 산은 그의 영감이다. 시몽 샤리에르(Simon Charrière)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려 왔고, 스키도 그만큼 오래 타 왔다. 최근 그의 선들은 전 세계의 벽에서, 그리고 프리부르(Fribourg) 지역의 산에 자리한 슬로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몰레종은 놀랍죠. 프리라이더들에게는 엘도라도랍니다.”
포토그래퍼들은 시몽이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프리라이더로 영화에 담고 싶어한다. 만 3 세에 스키를 처음 배운 그는 13 세에 스키 투어링에 나섰다. “깊은 눈이 쌓인 산 속 슬로프를 찾아 헤맸고, 진짜 터프한 협곡에서 스키를 탔었죠.”라고 시몽은 회상한다. 스폰서들은 이 프리부르 출신의 프리라이더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의 다운힐 라인은 마치 눈 밭에 새겨진 시그니쳐같아 보인다. 시몽은 항상 완벽한 라인을 찾는다. 전 세계에서, 근처 발레(Valais) 알프스에서, 그리고 몰레종같은 그의 고향 프리부르 산에서 말이다. 눈꽃이 날리면, 기쁨의 외침이 절벽에 부딪혀 메아리로 돌아온다. 그가 산 아래 안개 속에 삼켜지고 나면 그의 뒤로 남는 것은 눈 밭에 새겨진 세 개의 거대한 포물선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몰레종에서 아직도 새로운 코스를 찾을 수 있어요.”
그의 웃음, 그의 스키 스타일, 그의 열정은 그 어떤 대회 결과보다 중요하다. “프리라이더 챔피언쉽은 진짜로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난 친구들과 함께 알프스를 가로지르는 여정을 즐기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시몽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프리부르에서 드넓은 세상으로 나갔다가 언제까지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다. 프리부르, 발레, 유럽 알프스 나라들, 노르웨이, 일본. 스폰서들은 시몽을 전 세계 스키 모험으로 떠나게 해 주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세계가 그의 발치에 있는데도, 그는 항상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게 프리부르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여행을 많이 하지만, 꼭 향수병을 앓죠.” 시몽은 웃는다.

눈 밭 위와 종이 위의 라인들.
산과 스키는 그의 드로잉 작업의 영감이 되어 준다. 어린 시절부터 시몽은 종이와 연필을 들고 모든 빈 공간에 끄적거리지 않을 때가 없었다. 드로잉에 타고난 재주를 가진 그는 건축을 공부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프리 핸드 드로잉과 프리라이드였죠.”

“스키와 드로잉으로 살아 가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정확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일치하죠.” 시몽은 5 년째 그의 꿈대로 살고 있다. 그에게 다른 포부가 있을까? “음…. 내 책이 한 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를 일이다. 한 출판사가 이미 그에게 컨택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세요? 전 먼저 이 협곡을 스키로 지날거에요. 그리고 우린 정상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퐁뒤를 먹을 거에요.” 시몽의 눈이 빛난다. 그의 펜을 재킷의 주머니에 찔러 넣는다. 다음 라인을 위해 준비가 되었다. 종이에도 눈밭에도 말이다. 그의 꿈은 계속 된다.

몰레종.
프리부르 토박이들은 몰레종을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꼽는다. 알프스 입구에 웅장하게 서 있는 몰레종 산은 끊이 없이 이어지는 전망을 선사한다. 프리부르 도심에서 30 분밖에 안되는 거리에 있다. 산 정상에 있는 산장 식당, 르 소메 레스토랑(Le Sommet restaurant)에서 그뤼에르 치즈 반, 바슈랭 치즈 반을 섞어 만든 퐁뒤, 무아띠에 무아띠에(moitié-moitié)를 꼭 맛 보아야 한다. 가까운 그뤼에르(Gruyères) 마을과 치즈 공장, 라 메종 뒤 그뤼에르(La Maison du Gruyère)를 찾아 보아도 좋다.

몰레종 스키장.
* 해발고도: 1,110m – 2,200m
* 30km 에 달하는 슬로프
* 5 개의 스키 리프트
* 1 대의 케이블카
* 1 대의 퓨니큘러
* 정상의 파노라마 레스토랑
* 중간역의 테라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